



일을 끝까지 못하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있는 밥과 과일을 먹으며 살아간다. 그들은 인간이고 그들도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들 중의 상당수는 어린이들이다. 그들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받아오는 돈은 1달러(한화 약 1000원) 미만이다.

우리는 분명 이렇게 살아가는 인류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 앞에 숙연함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그들을 도우려 해도 도움이 손길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음식물을 꺼내먹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지금하고 있는 공부나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힘들어도 계속해야 한다.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지금처럼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순간이 반드시 온다. 다행히 우리는 문명인의 생활을 누리고 있다. 집에 텔레비전과 냉장고도 있고 테러의 위협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최소한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사회적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죽는 법은 없다

여건을 탓한다면 그것은 분명 무질서와 타협해 버린 것이다.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빈둥거리며 지내는 것은 신체와 생명을 망친다. 새가 날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 현대 광고의 아버지, 데이비드 오길비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죽는 법은 없다'는 스코틀랜드의 속담을 믿는다. 인간은 지루함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질병 때문에 죽는다. 일이 많고 힘들다고 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

재대로 된 인간이라면 1달러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현재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끼니를 해결하면서도 꿈을 잃지 않는 절박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최소한의 양심을 가졌다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탓하거나 환경 탓, 사람 탓을 해서 안 된다. 그나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감사하며 절박하게 자신의 분야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다운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한 가지 일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직장을 최소 5번 이상은 옮겨 다니고 적성도 최소 5번 이상은 바꾸면서 살아간다. 잘 생각해 보라. 인

간은 성취감을 맛보며 성장한다.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작은 성취감은 절대 맛볼 수 없다. 성취감은 살아가는 이유를 확실하게 해주는 요소다.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면 일과 공부는 노동이 될 뿐이다.

사람은 성취감을 만들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너무 완대한 목표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루하루 성취해 나가며 작은 행복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당신이 원하는 완대한 꿈은 바로 지금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위대한 결과물임을 기억해야 한다. 무질서와 타협하지 말고 현재의 고통을 의연히 받아들여라. 일은 스스로를 단련하고, 마음을 갈고 닦으며, 삶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이다. 일은 많은 일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일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마음을 연마하고 인간성을 키워준다.

모든 일 자체가 사회적 계약으로 신용의 지킴을 수습하는 정신수양이며 자기의 완성이므로 일하는 자체가 끝도를 닦는 것과 같다. 돈보다 귀중한 것은 인격의 완성이니 이익이 없더라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평생 열심히 정진해야 한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는 것을 벗어나야 한다.

일은 힘들고 고된스러운 것이 아닌, 기술을 갈고 닦아 연마할 뿐 아니라 마음을 수습하는 과정이며, 자아를 실현하고 인격을 높이는 수단이다.*

외국인을 영어와 입어로 전도합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We are all one.
私たちは一つです.

•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조상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Man is not a being fallen from heaven, but a successor being of his parents' blood.

人は空から落ちた存在でなく先祖の血で作られた存在です.

•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조부모님의 피로, 증조부님은 고조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올라가면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헤와가 나오입니다.

Your children were made of your blood; you of your parents' blood, parents of grandparents', grandparents of great grandparents', and so forth, to the first parents; Adam and Eve.

あなたの子供はあなたの血で作られました。あなたはあなたの両親の血で作られました。ご両親は祖父母様の血で、曾祖父様は高祖父母様の血で作られました。このようにずっと上がれば人類の初孫祖、アダムとイブが出て来ます。

• 따라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헤와의 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하나입니다.

Accordingly, all human beings are of to the first parents; Adam and Eve. Accordingly, all human beings are of Adam's and Eve's blood. Therefore, all mankind is one.

したがって、すべての人類はアダムとイブとの血で作られました。だから、すべての人類は一つです。

• 우리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조상과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We are not separate and apart. We have only one family pedigree. Because we have the same ancestor, the same blood vessels and the same blood, we are all one (Acts 17:26).

私たちは互いに独立した別個の存在ではありません。私たちは全部ある血統から出ました。私たちは同じ先祖と血統を持っています。私たちは全部一つです。

속담 속의 영생학 티끌모아 태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됨을 이르는 말인 "티끌모아 태산"은 보통 돈과 명예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힘들어 이룩한 돈과 명예도 죽으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승리제단의 이진자 구세주께서는 영생할 수 있는 비법과 방법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매일 매일 알려주시고 이 길도 티끌 모아 태산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초초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유를 지키면서 조금씩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면 반드시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갈릴레오가 500년 전 지구가 둥글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아? 라고 반문하지만 승리제단 구세주님은 사람의 마음은 피착용이고 피가 곧 마음작용이라 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피는 곧 마음에 의해서 변하고 자신의 마음에 의해서 피를 맑게 바꿀 수 있다. 고로 피를 썩히는 화를 내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살인죄가 되는 것이다.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요 피를 맑히는 비결이고 이것이

곧 영생의 비결이다. 여기 승리제단에는 34년간 티끌모아 태산처럼 스스로의 마음과 초초로 싸우면서 자유를 지키며 가는 참도인들이 참의인으로 한 발짝 한걸음으로 진행하면서 변화를 입어가고 있다. 하루하루는 티끌이지만 언젠간 태산이 될 영생의 희망을 품고! 진정한 빛은 영원히 꺼질 수 없는 영생의 빛이다. 빛의 세계에서 날아다니며 사는 불사영생이 오직 이 우주에서 대한민국 소사 승리제단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에디슨의 전구발명은 인류 삶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백열전구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 하나 배우고 깨달아야 겨우 조금씩 체득할 수가 있는 고차원의 학문이다. 원래부터 인류의 조상은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였고 영생의 존재였다는 아담과 헤와의 진정한 근원을 알려주시는 고차원의 학문이 있는 승리제단! 이곳에서는 현재 조금씩 영생의 세계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참고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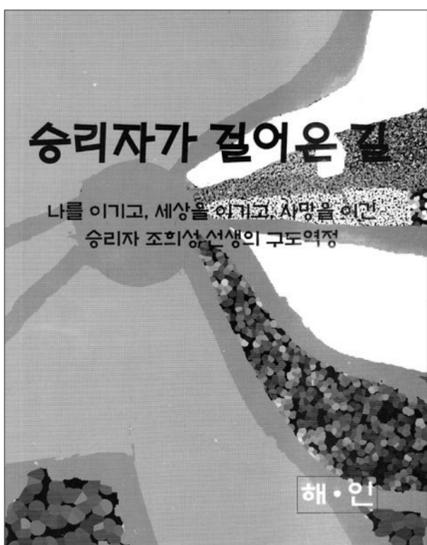
우리말 바꾸기 햇갈리는 우리말 모음①

우리말에는 햇갈리는 말들이 참으로 많다.

1. ~던지/ ~든지 : 지난 일을 나타내는 어미는 '~던지'이고 물건이나 일의 내용을 가리키지 않는 뜻을 나타내는 조사와 어미는 '~든지'로 적는다.
예) 개가 밥을 잘 먹더라./ 가든지 오든지
2. ~로서/ ~로써 : 자격을 나타내는 말에는 '~로서'가 쓰이며 도구나 수단을 나타낼 때는 '~로써'가 쓰인다.
예) 저 분은 선생님으로서 자격이 있다./ 벽돌로써 망치를 대신한다.
3. 배요/ 봐요 : '배요'는 '봐요'의 준말이다. 따라서 "내일 배요"를 "내일 봐요"라고 고쳐 써야 옳다.
4. 맞추다/ 맞히다 :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라는 뜻으로 '맞추다'를 쓰고 '쓰거나 던지거나 한 물체가 어떤 물체에 닿다.'라는 뜻으로는 '맞히다'를 사용한다.

- 예) 문제를 정답에 맞추어 보았다./ 파랗게 화살을 맞히다.
5. 늘이다/ 늘리다 : '원래보다 더 길게 하다.' 또는 '아래로 처지게 하다.'의 뜻으로는 '늘이다'를 사용하고 '크게 하거나 많게 하다.'의 뜻으로는 '늘리다'를 사용한다.
예) 고무줄을 늘이다./ 재산을 늘리다.
6. 바치다/ 받치다/ 받히다/ 받치다 바치다 :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
받치다: '물건의 밑이나 옆 따위에 다른 물체를 대다.'
받히다: '받다(머리나 뺨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피동사
받치다: '구멍이 뚫린 물건 위에 국수나 아채 따위를 올려 물기를 빼다.'
예) 사장님께서 돈을 바쳤다./ 책받침을 밑에 받치고 글을 썼다./ 투우사가 소의 뺨에게 받혔다./ 국수를 체에 받쳐서 물기를 없앴다.*
이승우 기자

신간 안내



정가: 2,000원

승리자가 걸어온 길

승리자 조희성 선생의 구도 역정

열흘씩 금식기도를 밥 먹듯이 했어도, 30일씩 물 한 모금 잠 한숨도 자지 않는 금식기도를 14번을 했어도 '나'를 완전히 이긴 것이 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버리고 버려도, 죽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길을 찾았고, 드디어 '나'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생활을 철두철미하게 함으로써 '나'를 이긴 승리자가 되고야 말았다. 승리자 한 사람이 나온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것이다. 누구든지 승리자가 걸은 길을 걷기만 한다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영생을 추구하는 구도자의 필독서

우리 민족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신 승리자가 출현하셨습니다. 그 승리자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이 책을 많은 분들에게 배포하시게 되면 구세주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tel: (032) 343-9985

도서출판 해·인